

“군공항특별법’ 개정·민간공항 이전 시기 앞당겨야”

●공항통합이전 간담회 무슨 이야기였나

“이전 대상지 지원 근거·중전부지 개발 계획 수립 필요”
박군택 “법적 확정단계 아니어도 민간공항 먼저 보내야”
김지사 “현 시점에서 무안군민 대상 설명회 충돌 우려”

19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전남도-광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특별법’ 개정과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군 제공 이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전 지역 지원 대책의 적합성 여부와 향후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광주 국회의원들 사이에 입장 차를 드러냈다.

간담회에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기부 대안여 방식의 문제점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이전지역 지원사업 적절성 ▲민간공항 선(先) 이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을 통해 전남도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과 현 광주공항 부지에 대한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현 특별법은 이전지역, 즉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예타 면제 등 지원책이 제대로 없다”며 “이전 대상지에 주는 혜택 명시를 더 강하게 하고, 이전지에 대한 사업이 예타에 걸려 좌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광주시가 군공항 중전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 무안군민에게 상상하고 양보하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안군민은) 소음 때문에 옮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군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광주 군공항특별법은 공항 개발 사업의 주체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광주시이고, 국가보조

금 지급 규정도 없는 등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 동의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판단이 서면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가 지원 의무를 늘리고 주체도 바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도 “예비후보지 지정 이전이라도 중전 부지 개발과 이전 부지 지원 플랜이 필요하고, 특히 이전 부지 지원 규정은 특별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당장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군항 이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안군민 설득을 위해 민간공항을 보내라는 것인데 (광주시는) 전남도·무안군이 목 매고 있다 생각한다”며 “광주시 입장에서 민간공항을 보내는 게 선물인데,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확정되면 민간공항을 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예비후보지가 지정돼도 협상 테이블에 당사자로서는 없으므로 진전이 있는 만큼 예비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민간공항을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박군택 의원 역시 “김영록 지사와 무안군수, 다수 시민단체가 약속만 한다면 법적으로 확정

되는 단계가 아니라도 민간공항을 먼저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가 내놓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원책에 대해서는 양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지사는 “광주시가 제시한 1조원의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은 개발차익금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통한 지원이 아닌 광주시에서 국가사업 중 무안에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리스트를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광주시 재정 수준으로 5천500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주시의 무안군민 대상 설명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무안군민의 마음이지 만 소음 피해는 물론 기피시설을 떠넘긴다는 오해와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무안군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광주 정치인들, 광산구·서구 주민, 사회단체 구성원이 함께 무안군을 방문해 설득하고 오해 풀기 위한 노력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 상황에서 설명회를 하면 양 측이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소음 범위 등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닌 호소를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설명회는 여건이 더 되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시원 기자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가 19일 오후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정치권·남북 관계 원로·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1세션-한반도 전쟁 위기와 새로운 평화구상’이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애리 기자

“한반도평화 위해 행동하는 양심 되겠다”

9·19선언 6주년 기념행사…‘광주평화선언’ 발표
강기정 시장 “내년 세계양궁대회 북한 참여 추진”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는 광주시와 전남도, 경기도, 노무현재단, 포럼사외재,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제1부 광주평화회의, 제2부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이종석·김연철·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장관, 임동훈·서훈 전 국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희중 전 대주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가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고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명예교수 등 해외 전문가들도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열린 광주평화회의는 첫번째 세션 ‘한반도 전쟁 위기와 새로운 평화 구상’, 두 번째 세션 ‘두 개 국가론과 새로운 통일구상’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임종석 2018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기념

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상황을 2000년 이후에 최악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으며 수구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중심으로 조언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며 “2024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을 초청하기 위해 세계양궁협회와 교황청, 우리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어렵지만 가지 않는 광주의 도전에 북한과의 긍정적 화답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경 기자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여형 축제’로 개최

김지사 “국가·세대 초월 콘텐츠” 강조

전남도가 오는 27-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맛보고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개최한다.

전남도는 19일 도청에서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연출계획 보고회를 열어 참여형 축제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보고회는 홍보영상 상영, 총감독의 개막식 및 프로그램 등 공식행사 연출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하기 위해 1994년 처음 시작한 이후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 음식 축제로 성장했다.

올해는 ▲30년 성과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특별주제관 ▲남도음식 명인관 ▲남도종가 음식관 ▲세계 미식관 ▲김밥 쿡킹클래스 등 직접 맛보고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음식에 꼭 빠져들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Panasonic

CHANGE CHANCE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2024. 8. 12 ~ 2024. 9. 30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최대 100만원 할인

REAL PRO MAN1

만능사생활만은 만능의자

89% 신진안마기술업역

4년 무상보증 (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1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타사 안마의자를 포함하여 사용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 MAN1 최대 100만원,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할인가로 구매가능

2 MAN1 구매고객 전원 증정

초경량 무선청소기 WDD91증정 *제고소진시까지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